

“꿈 여의는 깨달음의 종교”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28

불교란 무엇인가 ①

〈보르헤스 불교강의〉를 집필한 보르헤스는 그 내용을 압축하여 실제로 대중 앞에서 강연을 가졌다. 다음 글은 그가 1977년 7월6일 조국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로로세울 극장에서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가진 강연 내용이다.

독자들은 이 글에서 그동안의 연재를 압축·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불교입니다. 이천오백년전, 네팔의 어느 작은 왕국에서 신타라타 혹은 고타마라 불리던 한 왕자가 태어나 정각(正覺)을 이루고, 베나레스에서 법륜(法輪)을 굴리기 시작하여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를 가르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

면, 불교의 포용성은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늘 그러해 왔습니다.

불교는 결코 쇠와 불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무력(力)이나 종교 재판(火淨)으로 사람을 깨우치게 만들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인도의 아쇼카 왕이 불교에 귀의했을 때,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불교신자는 개신교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소화할 수 있고, 그의 이슬람교나 유대교 혹은 유교나 도교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모임에 참



◀ 불교는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는 포용성으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며 세계적 종교로 확대됐다. 사진은 한국의 토속신앙을 포용한 신랑각.

“불교는 신화·우주관·다양한 철학의 세계
어떠한 사유체계도 담아서 소화합니다”

사성제·팔정도 등 가르침 이해보다 체득해야 포용 관용성 특징... 다른종교는 절대적 신앙요구

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선 불교사의 세세한 변천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교인 불교의 핵심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합니다. 불교는 기원전 5세기에 발생하여 전세계에 널리 퍼지면서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는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리토스, 피타고라스, 제논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불교를 서구인들에게 알린 대표적인 인물은 일본의 타이스즈키(鈴木大拙)박사입니다. 석가가 가르친 내용이나 스즈키박사가 현대적인 용어로 소개한 내용이나 그 핵심은 모두 같습니다. 불교는 종파에 따라 신화, 우주론, 미술적 사치니즘 등의 영향을 받아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지만, 역시 그 근본은 공통적이며 저는 그 공통적인 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도에겐 불교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교의 관용성은 불교의 응집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불교의 본질이 관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요가라고 부르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가란 어원적으로 라틴어 유구(yugu)와 같은 것으로,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규율(規律)을 의미합니다. 불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2천5백년 전 붓다가 베나레스의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행한 설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 깊이 느끼는 것, 즉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종교라도 단순한 지식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가져야만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불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요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붓다가 정각 후 베나레스에서 처음 설법한 내용인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

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붓다가 깨달아 전하고자 하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팔정도까지 설명하기에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전에, 붓다에 관한 전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禪)불교 신자인 어느 동양인 친구와 오랜 기간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천 오백년 전에 신타라타 혹은 고타마라 불리던 네팔의 한 태자가 살았고, 출가하여 붓다(이 말은 ‘깨어난 사람’을 의미하는데, 삼이라고 하는 긴 꿈을 꾸는 잠에서 깨어난 각자(覺者)라는 뜻입니다)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왔고, 지금도 믿습니다. ‘붓다’의 뜻을 말씀드리니, 제임스 조이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역사란 내가 깨어나고 싶은 악몽이다’라고 그는 말했지요. 어쨌든 신타라타 태자는 나이 서른 살에 인생이란 잠에서 깨어나 붓다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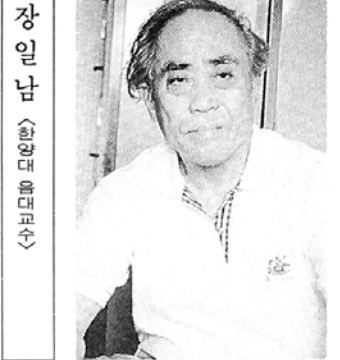
저는 불교신자인 그 동양인 친구와 자주 토론했습니다. ‘당신은 기원전 5세

기에 카필라바스투 지방에서 태어난 신타라타 태자에 대해 왜 믿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왜하면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천진난만한

얼굴로 덧붙이기를, 역사적인 붓다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믿는다는 것은 마치 수학 공식을 공부하는 것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혼동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극동지방의 산사(山寺)에서는 스님들이 참선을 할때 물두하는 주제(話頭) 중의 하나로 붓다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종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합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삼위일체 중의 하나인 성자(聖子)가 지상으로 강림하여 인간의 생을 살면서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바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교신자는 돈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붓다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붓다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보다는 그분이 남긴 가르침을 믿는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에 관한 전설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저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번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나는 1969년 봄에 10여일간 석굴암에서 스님들과 살았다. 스님들의 하루 일과를 흉내 내는 것이었는데 나는 ‘원효대사’라는 화두를 품고 있었다. 원효대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오페라를 작곡하기 위한 석굴암 생활은 매우 진지했다. 악상을 떠올리고 준비해간 오선보에 열심히 덧생을 했다. ‘산사에 가면 잘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경보스님의 도움을 받아 석굴암으로 갔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절 생활에서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예불 시간이었다. 온 우주를 깨우는 도량석 목탁소리를 들으면 나도 새로운 창작열의에 휩싸였고 스님들의 엄불가락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나 처음부터 절생활에 잘 적응한 것도 아니고 절에 들어서는 순간 음악적 영감이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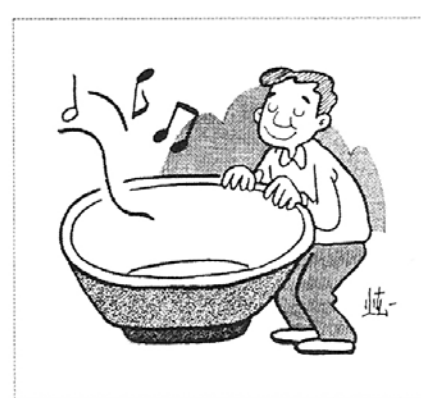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바심은 오히려 일을 못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 일에서

함께 즐겨는 삶을 사는 지혜를 원효스님이 가르치신 것임을 알아 한다”는 말을 했었다. 실제 그는 마지막 부분에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는 인생은 바람의 지락’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무욕의 삶이야말로 보다 큰 것을 갖는 삶이라는 지혜를 나는 짧은 절 생활에서 배울 수 있었다.

‘원효대사’를 완성하는데는 법정스님의 도움도 결정적이었다. 당시 스님은 강반봉은사에 계셨다. 스님은 클래식에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계셨고 음반도 굉장히 많았다. 수시로 스님을 찾아가 책에서 알지 못한 원효스님의 삶을 들었다. 원효스님의 삶에서 어느 대목이 왜 중요한 것인지 스님은 날마다 설명해 주셨다. 스님이 생

석굴암서 열흘 ‘무욕의 삶’ 가치 절감 오페라 ‘원효대사’ ‘불타는 탑’ 등 불교작품 작곡

어느만큼의 간격을 두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산속에서는 산이 안 보이는 것 아니니까.”



각하는 음악적 성격과 극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주셔서 나는 스님의 설명에 기준을 두고 오페라를 엮어 낼 수 있었다. 그때 법정스님은 ‘원효스님은 절에 있지 않고 저자거리에 있기 때문에 원효이다’란 말씀을 하셨다.

나처럼 환경도가 고향이라던 그 스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아마 열흘 동안 절말만 듣고 내내 하산했을지 모른다. 내가 절에 와 있다는 것, 작곡을 해야 한다는 것,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등을 생각하며 조바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 스님의 말씀 한마디에 동해바다처럼 시원하게 열려 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절에서 느끼는 그 모든 것이 음악임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찾는 곳에 음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생활이 음악 속에 들어 있음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하는 스님들의 엄불 곡조도 음악이고 산새들의 지저귀는 음악이고 일출의 장엄도 빛소리도 꽃이 피는 모습도 다 음악이었다. 지금도 큰 절에서 여러 스님들이 봉행하는 예불은 그 자체가 장중한 음악이다. 나는 그것을 작곡에 많이 반영했다.

석굴암에서 많은 분량의 곡을 가다듬을 수 있었지만 절생활이 내게 준 더 큰 보람은 살아가는 자세를 배운 것이었다. 오페라 ‘원효대사’의 작사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김부민씨가 썼는데 그는 “모든 생명이

오페라가 완성되고 71년 10월에 첫 공연이 있었다. 김지경 오페라단이 초연을 했는데 이화여대 강당에서 몇달 동안 연회를 했다. 기독교 단단의 회교에서 법고소리 목탁소리를 울리고 엄불 곡조를 울려 퍼지게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듯 싶었으나 김옥길 총장이 ‘예술에 종교적 편협성을 부여하는 것은 안된 말이다’라며 흔쾌히 도움을 주었다는 뒷얘기를 들었다. 청담스님은 ‘원효대사’를 관람하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주연급 배우들과 나에게 메달을 달아 주셨다. 물론 지금도 그 메달을 간직하고 있으며 메달을 보며 석굴암에서의 날들을 떠올리곤 한다.

88올림픽대 공연한 ‘불타는 탑’도 매우 불교적인 작품이었다. 여왕을 흠모하는 한 화랑도의 얘기를 통해 사랑의 고결함을 전하는 내용에 석굴암에서 느낀 불교의 대비심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97동계 U대회 성공기원 1만 관등 영산 대법회

일시 : 1996년 12월16일(음 9.5) 수요일 오후 1시~4시
장소 : 전북 무주읍 한풍루(공설운동장옆)

행사순

- 제 1부 : 1시 ~ 2시 식전행사(노영희 국악예술단 축하 공연)
- 제 2부 : 2시 ~ U대회 성공기원 대법회
- 제 3부 : 3시 ~ 영산제시연(영산작법 보존회시연)
- 제 4부 : 6시 ~ 점등법회

관등 동참금 1만원

연락처 0652) 82-1536 85-9700

주최 :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총무원
후원 : 전라북도 U대회 조직위원회·전북불교총연합회·무주군청

협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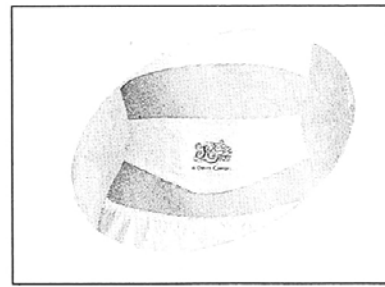
신비의 관광지 마이산 탐사
☎ 0655)33-2900,33-0303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의 기도도량
섬진강 최상류 맑은물의 탐영제 방생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남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어느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머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아가 임파의 태출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김힐(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갑상선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문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